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2017~2021년 기간 동안 자산적립성 보험에 대한 가계의 수요 및 선호도가 감소함
 - 보험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2021년 60%로, 2017년 이후 9.4%p 감소하였고, 보유가구의 보험 자산 평균은 2021년 기준 3,978만 원임
 - 적립 및 예치식 저축에서 보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31.7%로, 2017년 이후 8%p 감소한 반면, 수시·적립·예치식 저축의 비중은 5.6%p 증가함
- 동 기간 보험자산 보유율과 적립·예치식 저축 대비 보험자산의 비율은 소득3~5분위, 임금근로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 40세 미만 가구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짐
 - 구체적으로, 먼저, 보험자산 보유율 및 보유금액은 소득5분위에서 가장 높고, 보험자산 보유율은 소득 3~5분위에서 10%p 이상의 하락폭을 보임
 - 둘째, 보험자산 보유율 및 보유금액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에서 가장 높고, 보험자산 보유율은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구에서 가장 높은 하락폭(11.3%p)을 보임
 - 셋째, 보험자산 보유율과 보유금액은 각각 40대, 50대 가구에서 가장 높고, 보험자산 보유율은 40세 미만 가구에서 코로나 유행과 함께 16%p 이상 하락함
 - 마지막으로, 적립·예치식 저축 대비 보험자산의 비율은 소득수준·종사상지위·연령에 상관없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소득3분위(11.2%p), 상용직 임금근로자(9.5%p), 30대(14.4%p)의 하락폭이 두드러짐
 - 소득분위별 보험자산의 비율은 2021년 기준 4분위에서 39.5%로 가장 높고, 5분위 35.5%, 3분위 35.3%, 2분위 31.1%, 1분위 16.8% 순으로 높음
 - 연령대별 보험자산의 비율은 2021년 기준 40대에서 40.9%로 가장 높고, 50대 38.8%, 30대 32.9%, 60세 이상 22.7%, 30세 미만 16.3% 순으로 높음
- ‘저축수단으로서 보험’에 대한 가계의 수요 및 선호도 감소세가 젊은 세대와 구매력 및 소득흐름을 가진 계층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면 향후 자산적립성 보험시장의 위축을 예상할 수 있음
 - 특히, 코로나 유행 이후 40세 미만 가구의 자산적립성 보험시장 이탈과 보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자본시장 참여가 늘어난 만큼, 향후 이들 집단의 자산구성 동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음



1. 서론

- 보험 법규·통계는 가계성 보험을 저축성과 보장성으로 구분하나, 소비 주체인 가계의 수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보험 보유 및 선호 동향을 보험의 경제적 실질·기능별로 살펴야 함
 -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서비스의 경제적 실질 또는 기능보다는 단순히 보험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 따라, 즉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구분함
- 가계의 입장에서 보험은 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지출성 보험과 만기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자산적립성 보험으로 구분 가능함
 - 만기 시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장서비스에 상응한 보험료는 소비지출, 만기환급금에 상응한 보험료는 재산상의 형태를 보험으로 변경한 기타지출로, 저축에 해당함
-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자산적립성 보험에 대한 보유 및 선호를 연도별로, 그리고 가계의 경제·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고자 함¹⁾



2. 가계의 보험자산 보유 및 선호도

- 이하 분석에 활용하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계의 자산적립성 납입보험료 누적액을 조사, 수록함²⁾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매해 3월 31일 기준 가계의 자산 현황을 조사하며, 자산 항목 분류 체계는 <표 1>과 같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에 상응하는 보험료의 누적액을 보험자산으로 간주함³⁾
 - 보장성과 저축성 성격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혼합형 보험인 경우 총 보험료 중 저축성 성격의 납입보험료만 자산으로 인정하며, 불명확한 경우 전체 납입보험료를 자산으로 반영함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단독실손보험 등 순수보장성(소멸성) 보험은 소비지출 항목으로 자산집계 대상에서 제외됨

1) 보험자산 보유율은 보험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을, 보험자산 선호도는 적립 및 예치식 저축 대비 보험자산의 비율을 의미함
 2)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년 조사부터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관련 조사자료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함. 시계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분석기간을 2017년 이후로 제한함
 3) 대부분의 가계 관련 국내 조사는 만기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의 자산적립성 보험료를 별도의 금융자산으로 분리·조사하지 않고, 지출로 간주하며, 저축성보험에 한해 금융자산으로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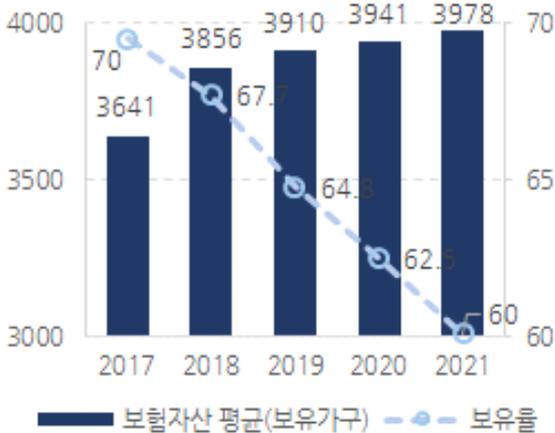
〈표 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항목 분류 체계

자산액	금융자산	저축액	적립·예치식 저축	· 현금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저축 · 저축성보험,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 ·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펀드 ·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기타저축	· 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낸 갯돈
		현거주지 전월세 보증금		
	실물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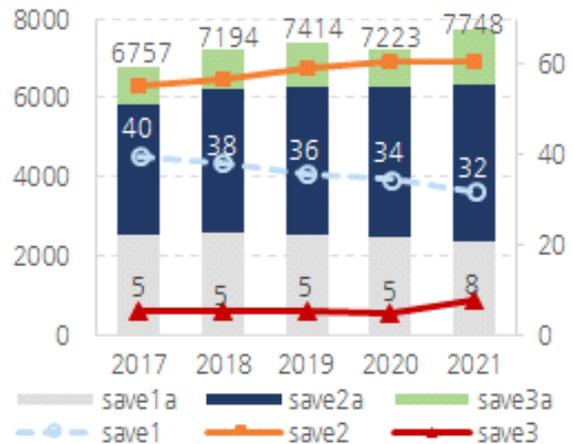
○ 2017~2021년 기간 동안 가계의 자산적립성 보험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함

- 보험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2021년 60%로, 2017년 이후 9.4%p 감소하였고, 보유가구의 보험자산 평균은 2021년 기준 3,978만 원임(〈그림 1〉 참조)

〈그림 1〉 연도별 보험자산 보유율 및 보유금액
(단위: 만 원, %)



〈그림 2〉 연도별 적립·예치식 저축 구성비
(단위: 만 원, %)



주: 1)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막대는 금액(만 원)을, 꺾은선은 비율(%)을 나타냄

2) save1~save3은 각각 보험, 현금과 입출금 자유·적립·예치식 저축(수시·적립·예치식 저축), 주식·채권·펀드 등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DOI: 10.23333/R.930001.001)

○ 적립 및 예치식 저축에서 보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31.7%로, 2017년 이후 8%p 감소한 반면, 수시·적립·예치식 저축의 비중은 5.6%p 증가함

- 적립·예치식 저축 대비 보험자산의 비율은 2017년 39.7%에서 2021년 31.7%로 감소한 반면, 수시·적립·예치식 저축의 비중은 2017년 55%에서 2021년 60.6%로 증가함(〈그림 2〉 참조)
- 적립·예치식 저축은 전체 금융자산의 76.5%로, 2021년 기준 평균 7,748만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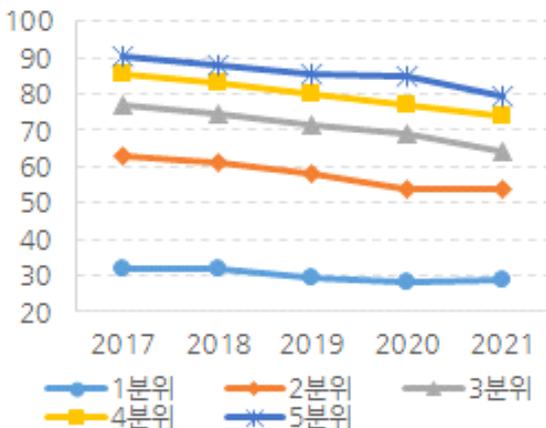
- 코로나 유행 이후 40세 미만 가구의 주식·채권·펀드 자산의 비중이 직전 연도(2020년) 대비 6%p 이상 증가함에 따라 적립·예치식 저축 대비 주식·채권·펀드 자산의 비율은 2021년 기준 8%로 증가함

3. 가계특성별 보험자산 보유 및 선호도

- 이하에서는 가구의 소득수준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상지위별, 가구주의 연령대별 보험자산 보유율과 보유규모, 그리고 적립 및 예치식 저축 대비 보험자산의 비율을 살펴보도록 함
- 먼저, 2017~2021년 기간 동안 보험자산 보유율 및 보유금액은 소득5분위에서 가장 높고, 보험자산 보유율은 소득3~5분위에서 10%p 이상의 하락폭을 보임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험자산 보유율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1분위~소득5분위의 보험자산 보유율은 2021년 기준 각각 29%, 53.6%, 64.3%, 74%, 79.6%로 소득계층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임(〈그림 3〉 참조)
 - 보험자산 보유가구의 소득분위별 보험자산 평균은 2021년 기준 1분위 1,620만 원, 2분위 2,350만 원, 3분위 3,078만 원, 4분위 4,241만 원, 5분위 6,418만 원임(〈그림 4〉 참조)
 - 동 기간 보험자산 보유율 하락폭은 소득3분위에서 12.8%p로 가장 높고, 4분위 11.5%p, 5분위 10.5%p, 2분위 9.5%p, 1분위 2.8%p 순으로 높음

〈그림 3〉 소득수준별 보험자산 보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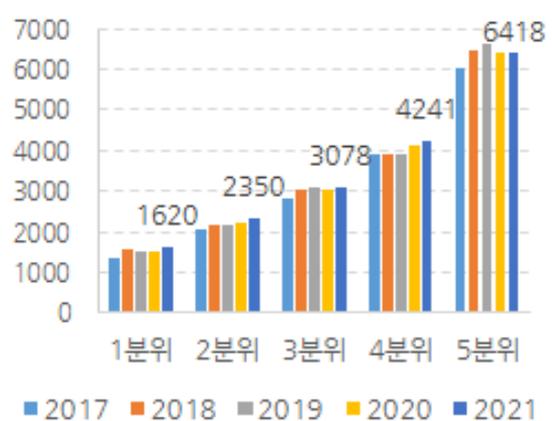


주: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DOI: 10.23333/R.930001.001)

〈그림 4〉 소득수준별 보험자산 평균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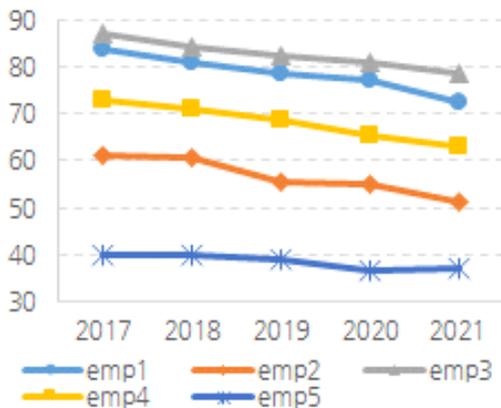


○ 둘째, 동 기간 보험자산 보유율 및 보유금액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에서 가장 높고, 보험자산 보유율은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구에서 가장 높은 하락폭(11.3%p)을 보임

- 보험자산 보유율은 2021년 기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78.4%),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구(72.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63.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가구(51.3%), 기타 가구(37.3%) 순으로 높음(〈그림 5〉 참조)⁴⁾
- 보유가구의 보험자산 평균은 2021년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6,324만 원),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구(4,398만 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3,687만 원), 기타 가구(2,940만 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가구(2,520만 원) 임(〈그림 6〉 참조)
- 분석기간 동안 보험자산 보유율 하락폭은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구가 11.3%p로 가장 높고,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가구 9.9%p,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 9.6%p,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 8.4%p, 기타 가구 2.4%p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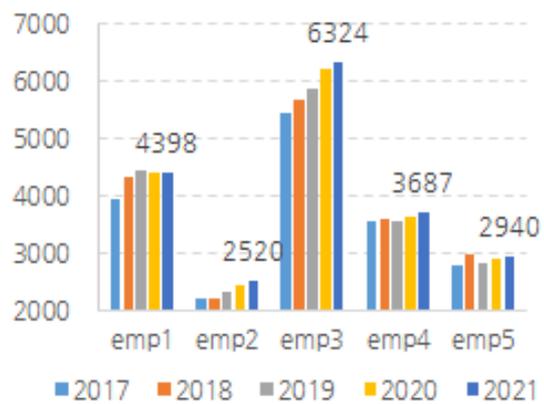
〈그림 5〉 종사상지위별 보험자산 보유율

(단위: %)



〈그림 6〉 종사상지위별 보험자산 평균

(단위: 만 원)



주: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emp1~emp5는 각각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기타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DOI: 10.23333/R.93000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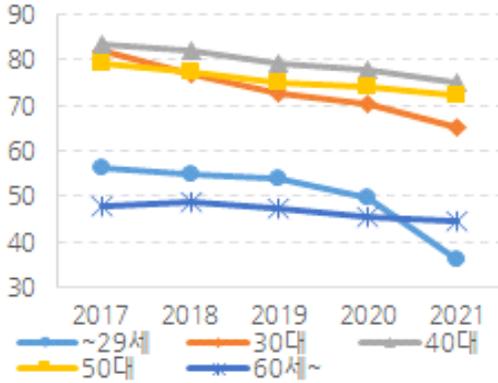
○ 셋째, 동 기간 보험자산 보유율과 보유금액은 각각 40대, 50대 가구에서 가장 높고, 보험자산 보유율은 40세 미만 가구에서 코로나 유행과 함께 급격히 하락함

- 보험자산 보유율은 2021년 기준 40대에서 74.7%로 가장 높고, 50대 72.1%, 30대 65%, 60세 이상 44.6%, 30세 미만 36% 순으로 높음(〈그림 7〉 참조)
- 보유가구의 보험자산 평균은 2021년 기준 50대에서 4,784만 원으로 가장 높고, 40대 4,259만 원, 60세 이상 3,537만 원, 30대 2,887만 원, 30대 미만 1,487만 원 순으로 높음(〈그림 8〉 참조)
- 분석기간 동안 보험자산 보유율 하락폭은 30대 미만에서 20.1%p로 가장 높고, 30대 16.9%p, 40대 8.5%p, 50대 6.9%p, 60세 이상 3.1%p 순으로 높음

4) '기타 가구'는 가구주가 무급가족종사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무직자, 주부, 학생 등인 가구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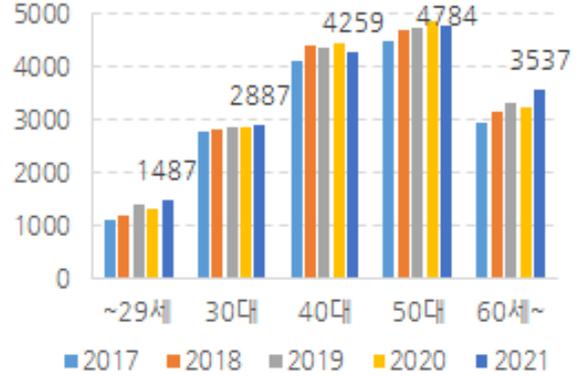
〈그림 7〉 연령대별 보험자산 보유율

(단위: %)



〈그림 8〉 연령대별 보험자산 평균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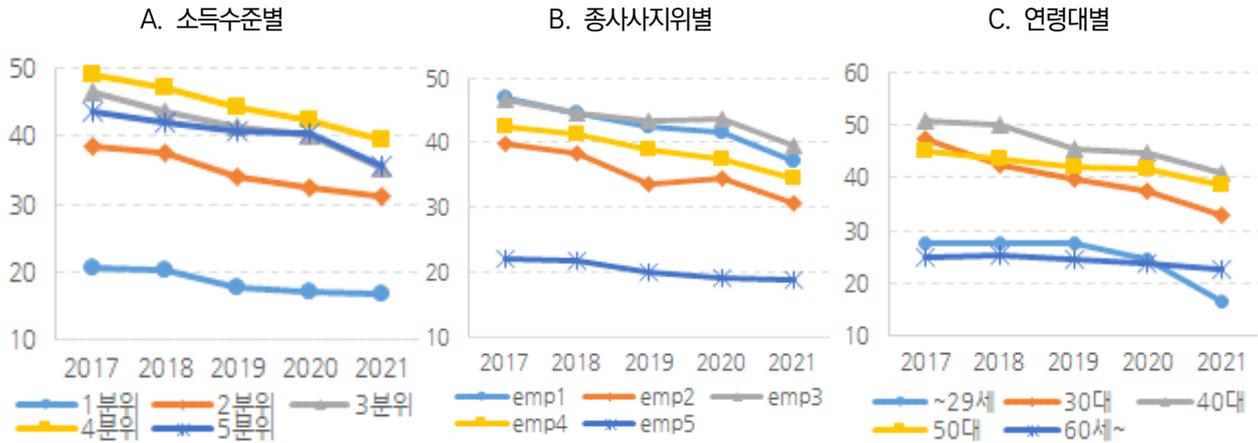
주: 가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DOI: 10.23333/R.930001.001)

○ 마지막으로, 동 기간 적립·예치식 저축 대비 보험자산의 비율은 소득수준·종사상지위·연령에 상관없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소득3분위, 임금근로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세 미만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짐

- 적립·예치식 저축 대비 보험자산 비율의 감소폭은 소득3분위에서 11.2%p로 가장 높고, 4분위 9.6%p, 5분위 8.2%p, 2분위 7.5%p, 1분위 3.8%p 순임(〈그림 9〉 A. 참조)
 - 소득분위별 보험자산의 비율은 2021년 기준 4분위에서 39.5%로 가장 높고, 5분위 35.5%, 3분위 35.3%, 2분위 31.1%, 1분위 16.8% 순으로 높음
- 적립·예치식 저축 대비 보험자산 비율의 감소폭은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구 9.5%p로 가장 높고,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가구 9%p,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 8%p,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 7%p, 기타 가구 3.2%p 순임(〈그림 9〉 B. 참조)
 - 종사상지위별 보험자산의 비율은 2021년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에서 39.6%로 가장 높고,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구 37.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 34.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가구 30.7%, 기타 가구 18.9% 순으로 높음
- 적립·예치식 저축 대비 보험자산 비율의 감소폭은 30대에서 14.4%p로 가장 높고, 30대 미만 11.3%p, 40대 10.1%p, 50대 6.4%p, 60세 이상 2.1%p 순임(〈그림 9〉 C. 참조)
 - 연령대별 보험자산의 비율은 2021년 기준 40대에서 40.9%로 가장 높고, 50대 38.8%, 30대 32.9%, 60세 이상 22.7%, 30세 미만 16.3% 순으로 높음

〈그림 9〉 적립·예치식 저축 대비 보험자산의 비율



주: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emp1~emp5는 각각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구,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가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 기타 가구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DOI: 10.23333/R.930001.001)



4. 결론

- ‘저축수단으로서 보험’에 대한 가계의 수요 및 선호도가 감소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젊은 세대와 구매력 및 소득흐름을 가진 계층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은 향후 자산적립성 보험시장의 위축을 예상케 함
 - 보험자산 보유율과 적립·예치식 저축 대비 보험자산의 비율은 소득3~5분위, 임금근로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 40세 미만 가구에서 하락폭이 큼
- 특히, 코로나 유행 이후 40세 미만 가구의 자산적립성 보험시장 이탈과 보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자본시장 참여가 늘어난 만큼, 향후 이들 집단의 자산구성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코로나 유행 이후(2021년) 30세 미만 가구와 30대 가구의 주식·채권·펀드 자산 보유율은 각각 28.2%, 37.4%로, 직전 연도 대비 각각 16.7%p, 13.3%p 증가함